

한라시론



양웅진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장

경자년 세밑 민심과 정치인들

경자년 설 연휴기간 나타난 민초들의 관심은 역시 선거와 정치였다. 2016년 촛불 정국과 특히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검찰의 이른바 조국 대란을 겪으면서 과거에 무관심하던 국민들까지 우리나라 정치의 모순성에 분노하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과거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권력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에게도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SNS의 폭주 속에 다양한 개인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재되면서 인기있는 정치관련 계정은 수십만명까지 팔로워를 늘려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판도는 크게 요동칠 수도 있을 것인데 기존의 프레임이 유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진보와 보수의 틀이 짜여질 것인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과 설정을 내 놓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기성 정치인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불가피 할 것이고 오히려 신인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등장 시기로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결국 선거가 관건이다. 언제나 선거철이면 그랬듯이 평소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들이 내 걸리고 그 와중에 새로운 이름들도 비집고 걸린다. 그리고 저 나름의 공약들을 목숨걸고 지킬 것처럼 기자들을 모아 놓고 떠들어댄다. 그런데 그 공약이라는 것들의 나열 속에서 진정성을 찾아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대

통령의 공약인지 시장, 군수의 공약인지 어려운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선출직 공무원이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법을 제정해서 바꿀 수 있는 지방의 문제들이 지금의 공약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 선출직 정치인이 되면 과연 모두 다 실현 가능한 공약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합보수에 합류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찾아가 손을 잡았다. 마치 통합되기 전에 빨리 자신을 부각시켜서 새 보수당 내에서 요직을 확보하겠다는 속내를 보이는 듯 한 행보였다. 그런데 그런 도지사를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 누굴 탓 하겠는가. 민주당 또한 지역 민심과 상관없이 제주시 갑 지역을 전략 공천지로 선정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공분

을 사고 있다. 언젠가 이 칼럼을 통해서 정치의 의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의와 토론, 조정 등 의 활동'이라는 정의를 거론 한 바 있다. 최근의 도백에게서 그러한 정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기존의 정치인들 또한 많은 이들이 그러했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인 자신의 명예와 권력 찬탈을 위한 아집과 트집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진짜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유권자로서 해야 할 일은 후보들의 진정성을 확인 하는 것이다. 진정성이란 후보자들이 평소 살아온 발자취와 함께 그들의 공약 가운데 당선자의 위치에서 해 낼 수 있는 공약을 가려 내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권자로서 관당이나 동문은 그만 찾고 진짜 정치인을 찾아내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사설

또다시 불거진 선거공신 보은 인사 논란

원희룡 지사의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초부터 불거진 선거공신 보은 인사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원 지사와 함께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 제주도청 고위공직자도 산하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돼 말들이 무성합니다. 최근 제주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에 임명된 A씨는 2018년 5월 원 지사의 공약 발표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단 조항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기간 전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관계에 비추면 시민주권단체에서 전형적인 선거공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 추천된 3명중 임명하는 절차를 거

'우한 폐렴' 악재로, 제주관광 걱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관광업계가 불통이 되고 있습니다.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조치가 보이면서 한껏 기대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면 제주 관광업계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8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예정된 1만4394명보다 38.2%(5501명)가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27일 기준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예약취소가 350여건 3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됐던 중국 쓰보시축구단 전지훈련이 취소됐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아홉 배수도 10개 여행사 550여명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직항노선도 눈에 띄게 감소하

편집국 25시

난수표같은 보수 통합 가능할까



부미현 정치부 차장 bu8385@halla.com

보수진영의 통합 추진으로 정치권이 들쭉날쭉하다. 보수 야당은 뿔뿔이 흩어졌던 보수 진영을 한 데 모아 문재인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돼 중앙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했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거둬들여 나갔다. 그러나 말이 통합이지 보수가 뿔뿔 뭉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4·15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서둘러 하는 통합이다보니 중구난방이다. 모두 통합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리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형국이다. 법안권이 뜻이 통하는 부분은 '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 외에는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함께 하고자 하는 진영의 범위 등 이해관계가 과연 좁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형식적인 통합이 아닌 국민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하기에 더욱 어렵다. 원지사는 지난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국민의 정권 심판에 대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과거 보수정당에 실망해 떠난 중도 보수층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망한 비문 중도층 유권자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여줄 수 있는 그러한 단일 통합 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회의적이다. 과거의 자유한국당과 지금의 자유한국당, 과거의 보수와 지금의 보수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먼저 물음표를 던져봐야 할 것 같아서다. 예를 들어 과거사 해결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가져온 보수 야당이 제주 4·3을 비롯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공약을 내걸 만큼의 획기적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수의 모습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보수 통합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데에는 총선에 앞서 이들이 공천을 두고 벌일 이전투구가 뻔히 내다보인다는 점도 한 몫한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심판대에 올려놓고 있다.

뉴스-in

'우한 폐렴' 영향에 졸업식 풍경 변화

학부모 참석 자제 요청

○...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학교 졸업식 풍경도 변화.

29일 현재 도내 6개교가 이달 말까지 졸업식을 남겨두고 있는데 졸업생이 있는 각 반 교실에서 행사를 치르는 등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고 학부모 참석 자제도 요청.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점처럼 강당에서 졸업식을 열면 다중이 밀집할 수 있다고 보고 감염 예방 차원에서 지난 28일 저녁 각급 학교에 각 반 교실에서 졸업식을 열도록 안내했다"고 설명. 전선희기자

제주도 부패방지 평가 3위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의 성적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안도의 한숨.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했지만 종합 점수에서 89.25점(광역지자체 평균

85.3점)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3위를 기록하며 반부패·청렴시책이 2016년부터 4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했다고 홍보.

도 관계자는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시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다짐. 조상윤기자

제주시 도정질문 답변 점검

○... 제주시가 지난 23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눈길.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제주시 소관 189건과 제10대와 제11대 현재까지 도정질문 관련 답변사항 중 추진 중인 제주시 소관 9건 등 총 198건 등에 대해 추진 상황 점검차원에서 진행.

제주시 관계자는 "유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부고 김두행(자영업) 어머니 여신송씨 태순(향년 94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29일 04시 5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월 31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1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장 지: 해안동 가족묘지
남편 김명권(故) 아들 김두행 며느리 이영숙 두석 윤여진 병수 고현자 딸 김미성 정선 정자
※ 연락처 : 김두행 010-5431-2289 김두석 010-9950-7071 김병수 010-3696-0099 김미성 010-3480-6545 김정선 010-9971-5667 김정자 010-5382-654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풍기진공 봉국(향년 9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월 30일
아들 진철규 며느리 한현옥 영규 오욱순 딸 진영자 사위 김여식 현숙 현용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이선(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월 30일
아들 박영선 며느리 이애란 딸 박희경 사위 이대운 희순 김오진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 이미선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중 2012. 10. 24. 자, 8. 21. 자, 7. 28. 자, 2012. 7. 14. 내지 2012. 10. 10. 자의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 29.
판사 박준석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영희(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월 30일
부인 부승 아들 고기홍 며느리 문향란 사위 오승학 딸 고현숙 기향 지희 지연 강영철 장영철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5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이문영
위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 29.
판사 최석문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식식품의약품안전처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